

# '이주' 통해 본 아시아 역사·사회·문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3일까지 '이주서사' 전 9개 도시 기반 활동 9명 큐레이터·21팀 참여

영상과 시각예술로 문화 다양성·복잡성 등 조명

태평양 전쟁 당시 남방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열대'를 만났을까? 그 무렵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노동 등 다양한 이유로 남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전쟁과 식민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열대를 겪었다.

회화는 당시 사람들이 머물렀던 일본, 오키나와, 남양군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주변 섬까지 아우른다. 선언문을 읽었던 장소, 글을 썼던 방, 오갔던 길 등 머나먼 여정이 차례차례로 이어지며 흐릿하게 지워진다. 회화를 따라가다 보면 특정한 공간은 상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또한 그 공간은 특정한 시기와 사건과 연동돼 있으며 역사적 함의를 지닌다는 것에도 만나게 된다.

오늘의 시대 '이주'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2관에서 개최되는 '이주서사' 전이 바로 그것.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주한 독일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는 이주라는 통합적인 주제를 매개로 아시아 역사와 사회, 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다. 특히 독일문화원의 전략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2018년부터 진행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주 서사'의 마지막 여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9개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9명의 큐레이터와 21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노민투야 바산쿠, 파소연 등 큐레이터들은 서울, 광주, 베이징, 홍콩, 울란바토르, 타이베이,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각각 활동했다. 몽골 출신 비안반암 우르트나산 등 21팀에 소속된 작가들 국적 또한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다양하다.

이번 전시는 이주와 맞물려 있는 다양한 양상과 상황, 예술과 이주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작년 9월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92개국 약 245만 명이다. '외교부 2019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세계 각 지역의 재외동포는 180개국 약 750만 명에 이른다. 그만큼 '이주'의 현상은 현재적이며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파소연 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는 "이주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이주가 보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해되고 다루어지는 방식에 미치는 이미지의 영향력과 힘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주를 명징하게 환기하는 작품은 몽골

작가 비안반암 우르트나산 등 4인작가의 '기억의 이주'다. 이들은 기억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몽골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최초 학생들의 경로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30일간 2만km를 여행하며 각자의 생각의 단상을 풀어놓는다.

"건물, 도시, 도로, 사람들은 바뀔 수 있지만 도시의 소리, 사람들의 음성, 교통소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동일하게 남는다."

이 같은 사유는 인간이 소리와 무빙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인간의 이야기는 시시각각 느끼는 희로애락, 고통과 상상력의 조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일본작가 시무라브로스의 '구출'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주와 함께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영상화면은 '기억하기'의 의미와 구출이 지니는 행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은 제2차세계대전 중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제국 부영사로 재직했던 스키라 치우네와 그의 아내 유키코. 이들은 폴

란드 및 리투니아계 유대인들이 유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일본 경우 비자를 써준 인물들이다. 일설에 따르면 이들은 가능한 많은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하루 18~20시간을 일했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작품은 우리 시대에 인도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확장 가능성을 묻는다.

김아영 작가는 '페트로제네시스, 페트라제네트릭스' (광물), '다공성 계곡': 트릭스터 플롯'이라는 두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화를 더듬어간다. 작가는 몽골 조사를 바탕으로 돌과 바위는 지구의 기억을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말한다. "석영(石英)은 일종의 자연산 컴퓨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저장하기 때문이지요."

작가는 이주와 관련된 난민과 데이터의 이주를 다양한 층위로 보여준다. 광물이 지니고 있는 데이터는 오늘의 이주를 신화적,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몽골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최초 학생들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2만km를 여행하며 담은 영상. 비안반암 우르트나산 외 '기억의 이주'. <ACC 제공>

##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선정

국비 4억2000만원 확보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은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광주·전남권 주관처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청춘마이크'는 청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수요일 및 주

말)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재단은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100여명의 청년예술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를 대상으로 문화소외지역, 다중밀집지역 등에서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또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행사 연계해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재단은 2017년, 2018년 사업 진행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청년예술가 지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플랫폼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8 청춘마이크 사업 공연 모습

## 광주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지원사업 29일까지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2020년도 '유아 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신설된 유아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프로그램 ▲교육키트 ▲사전/사후 활동지 등을 개발하고 유아기관 및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총 지원예산은 2억원으로 4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체별 지원규모는 약 5000만 원이다. 사업대상은 광주시 내 문

화시설이며 예술단체 지원도 가능하나 반드시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공모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오는 24일부터 29일(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사업 설명회가 25일 오후 3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는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횡단열차·바이칼호수 파도소리...러시아서 겪었던 경험과 사유

고흥 출신 송중찬 시인 에세이집 '시베리아를 건너는 밤' 출간

"작은 몸으로 채울 수 없고, 시로 노래할 수 없었던 광활한 대륙을 위해 산문의 발자국을 더해 본다. 다가서면 멀어지고 보면 불수록 아득해지던 시베리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눈보라처럼 떠돌았던 만 북극은 여전히 낯설기만 할 뿐, 누군가가 러시아에 대해 물어오면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하리라. 그리고 침묵할 것이다."

고흥 출신 송중찬 시인이 에세이집 '시

베리아를 건너는 밤' (삼인)을 펴냈다. 송 시인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여 동안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러시아 문화 예술을 접했다. 이번 책은 당시 러시아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사유와 경험의 산물이다.

책에는 시베리아 벌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들꽃, 자작나무숲을 돌아가던 횡단열차, 바이칼호수의 파도소리와 같은 자연의 풍광이 담겨 있다. 또한 슬그머니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던 소녀들과 안



가라강 위로 퍼지던 성당의 종소리 등 사랑과 사물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그 자체도 담고 있다.

저자는 4년여를 사는 동안 러시아는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다고 고백한다. 러시아의 혹독한 자연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가슴 속에 박힌 기억의 편린들은 특유

의 감수성과 맞물려 서정적이며 감미로운 문장으로 되살아난다.

문태준 시인은 추천사에서 "송중찬 형이 쓴 시적인 문장들에는 러시아 장편소설 같은 이 아름다운 문장들에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와 낯밤의 일상이 불가각처럼 흐른다.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이국에서의 밤처럼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한다.

한편 송 시인은 지난 1993년 '시문학'에 '내가 사랑한 겨울나우' 외 9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집 '그리운 막차', '손끝으로 달을 만진다', '첫눈을 혁명처럼'을 펴냈다.

## 광주독립영화관, 광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독립영화관(GIFT)이 광주영화학교 제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프로듀서, 장면 시나리오, 연출, 조명, 동시녹음, 촬영, 편집, 음악, 스토리보드, 미술, 영화제 기획 등 11개다.

각각 '프로듀서의 모든 것', '장편 상업 영화 시나리오 워크숍', '작품분석: 기생충, 벌새', '빛을 다루는 기술, 영화 조명 실제', '영화의 소리를 담은 동시녹음', '중급영화 촬영', '영화 편집의 이해와 분석', '연출자들이 알아야 하는 영화음악', '시나리오의 시각화', '영화 미장센의 예

술, 미술', '영화제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정주 프로듀서, 김실형 연출, 정재형 동국대 영화과 교수, 추경영 조명 감독 등이다.

영화제작 경험자 및 영화 영상 관련 직종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1일(평일 오후 6시30분~밤 9시30분, 주말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주말 오후 2시~5시)까지다. 신청은 12일까지 네이버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 style="text-align: center;"><b>김동일쉐프</b></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모스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굴정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행영 ☎ 062)228-1975, 010-9622-8938</p>	<p style="text-align: center;"><b>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b></p> <p>동구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p style="text-align: center;"><b>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b></p> <p>북구용봉동 1091-4(M-터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 style="text-align: center;"><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 style="text-align: center;"><b>광명천막기업</b></p> <p>북구 전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p style="text-align: center;"><b>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b></p>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p>	<p style="text-align: center;"><b>나주산약초</b></p> <p>나주시 동점문길 8(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특!! ☎ 061)333-4514, 010-3620-7268</p>	<p style="text-align: center;"><b>남약장례식장</b></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나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접가제공 ☎ 061)285-0444</p>
<p style="text-align: center;"><b>향촌</b></p> <p>서구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계순남회영 ☎ 062)371-0583, 010-3947-0005</p>	<p style="text-align: center;"><b>우영생기원</b></p> <p>동구 독립로 282-10(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p>	<p style="text-align: center;"><b>황금세차장(주)</b></p> <p>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 062)652-4564</p>	<p style="text-align: center;"><b>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b></p> <p>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p>
<p style="text-align: center;"><b>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b></p> <p>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p>	<p style="text-align: center;"><b>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b></p> <p>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계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p>	<p style="text-align: center;"><b>골프가방수선전문점</b></p> <p>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p>	<p style="text-align: center;"><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p>
<p style="text-align: center;"><b>연아불교용품</b></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굿, 양초 판매 ☎ 061)334-0088</p>	<p style="text-align: center;"><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 style="text-align: center;"><b>천을귀인</b></p>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p style="text-align: center;"><b>초대화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 style="text-align: center;"><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p style="text-align: center;"><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